

계속되는 의대생 수업 거부... 대규모 유급 불가피

SOCIETY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전남대·조선대 재적생 대다수 불참...대상자 통보

내일 복귀시한...2024~2026학번 동시 수업 우려 ↑

내년도 의대 정원이 동결됐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도 사실상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유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의대 학생들로 구성된 한국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유급이 확정되면 지난해처럼 관공을 배 풀지 않고 사전에 통지한 대로 유급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의대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학생들의 결단에 광주지역 의대생들도 대규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남대 의대는 지난 17일부터 수

업에 불참하고 있는 의학과(분과) 3·4학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유급 예정을 통보했다. 나머지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1·2학년에게도 지난 22일부터 유급 예정 대상임을 통보했다.

전남대 의대 재적생 893명 중 수업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수업 일수의 1/4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학점이 부여돼 유급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습수업 위주인 의학과 3·4학년의 경우 실습 기간 52주를 이수해야 하며, 주 2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유급 대상이 된다.

대학 측은 수업에 불참해온 학생들에게 대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유급 처리 시점은 학기 말인 오는 6월

께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대 의대 역시 재적생 878명 중 수업 참여율이 10% 내외로, 유급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선대 의대는 앞서 지난 18일 의예과 1학년을 제외한 수업에 불참 중인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수업이 2주 경과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유급 예정 대상자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대학 측은 학년 말에 유급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는 학년제로 수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학기 유급 시 다음 학기는 자동 '휴학' 처리된다.

문제는 2024·2025학번 의대생들이 유

급될 경우 내년엔 입학할 20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의대들은 트리플링 상황에 대비한 학사 운영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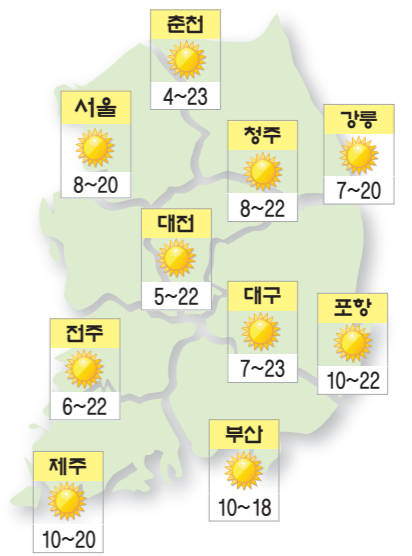
한 대학 관계자는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고 있다"면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강의실과 실습실 확충 등 정상적인 교육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68명으로 되돌렸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44 🌧️ 달림 06:18
☀️ 예보 19:16 🌧️ 달림 21:22



“비리·갑질·욕설 지방의원 특단 조치 촉구”

민주노총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한목소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리, 갑질, 욕설 등을 일으킨 지방의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의정혁신과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정혁신위)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 갑질,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지방의원을 출당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의정혁신과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위한 시민연석회의는 광주진보연대, 참여자치21,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감시단, 민주노동총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최근 김형수 부국회의원이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부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공개경고로 내렸고,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의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합당한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의견도 무시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윤

영되는 기구인데, 그 결정을 뒤엎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읊조렸다.

시민연석회의는 그동안 호남지역 1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인 비리, 갑질, 욕설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에는 시의회에 출석한 공무원들에게 모욕에 가까운 언행으로 시의회 의장이 공개사과를 했고, 임미란 시의원은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의회 회기 중 욕설을 한 고경애 서구의원,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오광록 서구의원 등 문제가 산더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세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선거구에서 2인을 초과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심이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을 불러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산화 기자 goback@



‘열두 달의 어린이날’ 전시회 28일 광주 서구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 아동 권리 특별전 ‘열두 달의 어린이날’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대 전신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서훈자 100여명

광주농업학교·목포상업학교·여수수산학교

단일학교 최대 규모...선양사업 추진 필요성 ↑

광복 80주년을 맞아 건국훈장 독립장과 애족장 등 서훈에 추서된 전남대학교 전신학교(前身學校) 출신가들이 100여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전남대 전신학교인 광주농업학교·목포상업학교·여수수산학교 출신 100여명이 3·1만세운동(1919년), 광주학생독립운동(1929년), 학생독립운동단체 결성(1940년대)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에 추서됐다.

이중 광주농업학교에서는 3·1만세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최정기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조선대 총장·전남교육감·국회의원) 등 49명이 추서됐다.

1920년에 설립된 여수수산학교 출신

우우홍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LA초대 총영사·오준UN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부친) 등 33명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 등으로 추서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학교인 목포상업학교 서훈 추서자는 박종식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국회의원 부친) 등 16명에 달한다. 전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독립운동가 의과대 조규찬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문리과대학 이윤호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등록됐다. 이는 단일 학교 차원에서는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학생독립운동으로 투옥되거나 퇴학 등 징계를 학교를 떠난 미서훈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을 포함할 경우 15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전남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전남대 스토리움에는 여수수산학교와 목포상업학교 참여자와 서훈자 명단을 기록되지 않았다.

스토리움에 광주농업학교 60여명의 명단에도 서훈 여부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3·1독립선언 참여자는 기록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대 3개 전신학교의 독립운동에 대한 고증을 통해 참여자 명단과 서훈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재기 교수 연구팀은 “스토리움을 비롯해 대학 연혁과 역사서 등에 3개 전신학교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고증을 통해 전남대학교 역사 정립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전남대 전신학교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선양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

공사장서 동 배관 흠천 50대들

만년필 ○·아무도 없는 공사현장에 들어 가 동 배관을 흠천 50대 남성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돼.

28일 광주 북부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한 50대 A·B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공사현장에 침입해 10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을 절라 공구상에 되판 혐의를 받아.

이들은 공사장 관계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지난 25일 복구 중흥동 한 모텔에서 붙잡혀.

A씨 등은 에어컨 동 배관이 고물상에서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이산화 기자 goback@

‘당직 읍주’ 광주 동구 사무관 감봉 3개월

주말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동구청 간부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주말 당직근무 중 술을 마셨고, 이를 목격된 직원이 구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읍주 사실이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포도주를 마신 것

으로 파악됐다.

동구 관계자는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등 공직 기강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직제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자연·인문학 하모니...증심사로 놀러오세요”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5월 31일~6월 1일 개최

한강·기후위기 핵심 콘텐츠...62개 프로 운영

광주의 상징적인 자연 명소인 무등산 증심사에서 인문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이틀간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지구구를 위한 인문축제(For:re[arth]st)’라는 주제로 무등산의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인문학적 시선

으로 재공함으로써, 시민이 ‘무등의 품’에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불의 길(지혜산책), 바람의 길(예술산책), 마음의 길(마음산책), 땅의 길(자연산책), 물의 길(인문산책), 이벤트 등 6개 분야 34종 62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핵심 콘텐츠는 ‘한강 작가’와 ‘기후 위기’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하는 테마공간 마련과 전시, 시민낭독회, 한일 문학기행 등을 구성해 민주주의와 무등산을 연결한다.

등급도 차별도 없는 평등한 대중 세상의 꿈이 서려 있는 무등산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지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 자원순환이라는 핵심 의제를 구성해 무등산국립공원을 비롯해 광주전남녹색연합, 친환경자연순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지역 내 환경 관련 단체가 참여해 ‘무등산’에서 구조된 야생동물사전진, ‘생물전’ 문가와 함께하는 시민과학자 활동’ 등을 선보인다.



광주 동구는 5월 31일부터 6월1일까지 이틀간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2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모습.

첫날인 5월31일 학운초등학교에서는 개막행사 ‘무등인문행진’을 시작으로 김탁환·이금아·최향랑 작가 인문 토크 콘서트, 청소년 인문 토크, 무등산 숲속 음악제 등이 열린다. 무등인문행진은 학운초등학교~전통문화관~주무대 1.7km 구간을 걸으며 무

등산의 생태 인문적 가치와 축제의 비전을 공유한다.

이어 둘째 날인 6월1일에는 ‘편백숲 생태물다양성 대탐사’, ‘의재미술관 사생대회’, 김혜진 소설가와 함께하는 ‘동아리 책수다’, 동구가 선포한 올해의 책을 청년 독서동아리와 함께 읽고 나누는 ‘청년

문학 거리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 무등산 편백숲에서 펼쳐지는 ‘숲명 소풍’, 명상을 찾아 떠나는 ‘인문사유 정원’, ‘인문도시 광주 동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와 팝업 부스 20개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국윤미술관 등 5개 미술관과 연계한 ‘무등 썰다전’, ‘청년 작가 2인 동물’, ‘기후 위기 관련전’ 등 주제로 기획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구는 인문축제 홍보를 위해 5월24일 문민정사 앞 주무대 광장에서 장불재 산행이벤트 ‘다 왔싸야’를 진행한다.

문민정사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 삼터까지 걸어나며 ‘인문은 ○○이다’ 메시지 등 사전홍보 이벤트와 인문음악회(가야금병창)를 선보인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